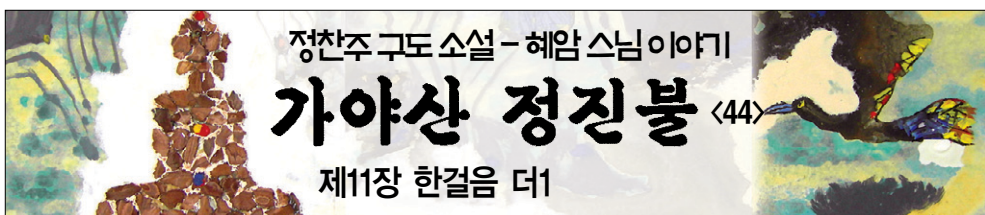


# ‘소임’ 보려고 중 된 것아니니 불편하면 떠나겠다



해암이 가야산 중봉암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해인사가 가까우면서도 인적이 드물어 정진하기에 좋기 때문이었다. 중봉암은 오대산의 토굴처럼 가야산 분지에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는 암자였다. 약초꾼들이 가끔 들를 뿐 가야산을 오르는 등산객도 중봉암이 어디 있는 줄 모르고 지나치는 암자였다.

두 칸의 암자에는 인법당과 부엌, 그리고 부엌에 딸린 골방이 하나 있었다. 움막 같은 화장실은 인법당과 좀 떨어져 있었다. 해암은 인법당에서 제자와 함께 공부했고, 골방은 창고로 쓰이다가도 시봉하는 보살이 찾아와 머물곤 했다. 소중은 마루 끝 처마 밑에 달려 있었는데, 청아한 종소리는 가야산의 적막을 깨우곤 했다.

이 소스라치게 놀라자, 해암이 밖으로 내뿜으며 말했다.

“보살, 신장님이 부르네. 어서 나가봐요!”

해암이 방문을 잡아당기니 보살은 더듬거리며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후 해암은 인정사정없이 방문을 닫아버렸다.

“시봉하러 온 사람에게 박수는 못 쳐 줄마정 쫓아내다니.”

보살은 분한 마음이 들어 잔결음으로 마당가로 나섰다. 그러나 더 이상은 한 발짝도 더 내딛을 수 없었다. 밤눈이 어두워서 해인사로 내려갈 수도 없었고, 다시 방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다.

순간, 보살은 하늘을 보았다. 주먹만큼 큰 별들이 하늘에서 푹푹 떨어질 것만 같았다. 바로 머리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별뚃별이 중봉암을 향해 날아오기도 했다. 보살은 홀연히 두 눈이 상쾌해짐을 느꼈다. 보살은 씩씩한 냉기 속에서 졸음을 쫓았다. 온몸에서 소름이 돋을 때쯤에야 해암의 목소리가 들렸다.

중봉암을 찾는 보살들 중에는 인곡선사를 시봉해 온 광명화보살도 있었다. 입적한 인곡을 10년간 시봉했던 광명화보살은 해암도 스승으로 모셨다. 마산에서 살고 있던 보살은 천 조각을 모아 집에서 손수 법복을 만든 뒤, 중봉암으로 올라 해암에게 삼배를 올렸다.

광명화보살이 해암을 시봉하기로 작정한 것은 나름대로 까닭이 있었다. 인곡의 가풍을 해암이 있고 있다는 사실을 문도들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인곡을 가까이서 시봉해온 보살 눈에도 무엇이 보였던 것이다.

“보살, 잠 깬으면 들어오소.”

해암은 보살에게 좌선을 시키는 대신에 법문을 시작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도 더 잘된다는 내용의 법문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나는 인곡스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 내 눈을 속일 수는 없다. 분명 인곡스님의 법을 이은 분은 해암스님이다. 그러나 나는 인곡스님을 모시듯 해암스님도 모실 것이다.”

보살은 때를 맞추어 중봉암을 오르내렸다. 짐이 많을 때는 갓 출가한 사미승이 해인사까지 내려와 지계를 지기도 했다. 밤중에 산길을 오르다 길을 잃고 자정 무렵에야 겨우 중봉암을 찾은 일도 있었다.

그런데도 그때 해암은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인법당 문에 어린 것은 분명 좌선하고 있는 해암의 그림자였다. 그림자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가을의 산중 날씨는 싸늘했다. 금세 땀이 식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보살은 다시 한 번 스님을 부르고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부엌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시자 원각마저

〈오대산 방한암 스님 살았을 때 그 당시를 회고해 보면 정말 꿈속의 일 같습니다. 태백산이나 오대산 같은 데 가니까 사람이 짐승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나무를 베어 가지고 움막에 흙을 바르고 사는데, 흙도 많이 붙어있고 나무 틈새만 막고 살아요. 흙이 떨어진 곳은 형겅이나 솜 부스러기로 막아놓고 있는데, 마치 돼지 굴속처럼 생겼어요. 아, 애들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신발 없이 맨발로 다니고, 밥을 굶어 얼굴이 하얗게 떠 있어요. 배가 딱 붙어 가지고 불쌍해요. 그래도 그런 생활에 익숙하니 탈이 안 납니다. 근데 나는 그런 불편하고 살기 힘든 산중에서 공부하는 데 잘 돼요. 나도 똑같이 밥도 안 먹고 녀 달 살아 봤어요. 그때 나는 한 끼를 생 것인데도 콩을 열 개나 일곱 개 먹었어요. 솜자를 세어 정확하게 먹었어요. 삼중에는 잣나무 가지를 분질러서 방에 두고 씹어 먹으며 물을 마셨어요.〉



그림·최문정

부하다가 안 되면 고생을 사서라도 공부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공부를 시키려고 어떤 스님에게 신심 있는 보살이 집을 지어 주고 아주 영양가 있는 맛난 음식을 날마다 해주었어요.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오직 공부만 하라고 넣어주었지요. 그런데도 스님은 공부가 안 돼요. 방안이나 주위에 공부를 방해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요.

그렇게 일 년, 이 년, 삼 년이 지나고 난 뒤에야 방안의 스님은 폐를 냈어요. 도인 되라고 방안에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끼니마다 밥을 넣어주는데도 공부 가 안 되니 그런 것이지요. 어느 날 보살이 밥 가지고 올 때야, 이년아 한번 보듬고 자자, 그렇게 소리 질렀대요. 그러니까 보살이 처사에게 일러버렸지요. 처사가 마누라 얘기를 듣고는 당장 스님을 내쫓았는데, 스님은 좋다고 춤을 추면서 나왔다는 얘깁니다.

이 공부는 이상해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질 않아요. 이 마음이 참 이상한 놀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 공부를 했어요.

보살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는 벌써 날이 밝고 있었다. 집에서는 정신안이 자고 있을 시간인데 이상하게도 경혈담이 섞인 해암의 법문을 들으면 수마가 달아났다. 몸은 피곤하지만 신심이 솟구쳤다.

그런 날에는 세상이 달리 보였다. 어제 보았던 것들이 새롭게 태어나 있었다. 자신도 묵은 허물을 벗고 부처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선 느낌이 들었다. 해암을 시봉하여 생긴 정복(淨福)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것이었다.

부엌으로 나온 보살은 부엌을 지키는 조왕선에게 합장했다. 그런 뒤, 씹을 한 줌 꺼내 술에 넣었다. 아침은 죽이었다. 해암이 낮에 한 끼만 하므로 아침은 물만 마시는 기분으로 죽을 쑤어야 했다. 상좌나 보살들이 아침공양을 해도 해암은 무겁거나 동치미 국물에 말건 죽만 먹고 말았다.

“보살, 아침에 일 좀 하고 내려가시오.”

“큰스님, 무신 일입니까.”

“배추밭에 물 좀 주고 가시오.”

“마산도 비가 안 와 채소가 누렇게 타고 있습니다.”

“가을가뭄이 길어진 것은 잠자는 수행자가 있어 그래.”

“큰스님, 날씨가 이러면 올해는 맛있는 무겁거나 동치미를 못 드시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일이 하나 생겼다.”

“무신 일입니까.”

해암은 대답을 하지 않고 양동이를 들고 썰터로 갔다. 해암이 망설이고 있는 것은 다음 달에 개설하는 해인총림에서 유나를 맡아달라는 성철의 부탁 때문이었다. 해인총림을 이끄는 초대방장은 성철이 추대돼 있는데, 선원의 초대유나를 누가 맡을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해암은 선원의 유나를 하기 위해 가야산으로 들어

온 것이 아니라고 반대했지만 성철은 강력하게 권유했다.

“해암스님, 내가 방장할라중 됐는지 아나. 봉안 사서 부처님 법대로 살자고 결사한 마음으로 해인총림을 개설한 거 아يا기. 해인총림이 살아야 한국불교가 산대어. 그러니 해암스님이 유나를 맡아야 한기라. 나도 목원을 깨고 법당에서 100일 법문을 할까다. 그러니 해암스님, 내 부탁 들어줘야 한기라.”

결국 해암은 1967년 10월 15일(음) 개설될 해인총림의 선원 유나를 받아들여기로 했다. 규모가 작은

선방에서 소임을 맡아 선객들과 함께 정진한 적은 있지만 총림에서 방장을 보필하는 소임은 처음이었다. 해암은 성철에게 조건을 달았다.

“불편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떠나겠습니다. 스님께서도 사람 못 된 게 중 되고, 중 못 된 게 도인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소임이나 보려고 중 된 것이 아니니까 공부하기가 불편하면 언제든지 떠나겠습니다.”

“해암스님 고집을 누가 막겠소.”

<계속>

“나는 인곡스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  
내 눈을 속일 수는 없다  
인곡스님의 법을 이은 분은 해암스님이다”

큰절에 내려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보살은 부엌으로 들어가 골방 문을 열었다. 골방에는 초여름에 갓 칸자가 아직도 굴러다니고 있었다.

“큰스님 공부를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오늘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스님께 인사드리자!”

보살은 호롱불을 켜 뒤 먼지 낀 방을 마른 걸레로 훑었다. 누울 공간이 생기자 이부자리를 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다.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정진하고 있을 스님을 떠올리자, 편히 누울 수가 없었다. 할 수가 없이 보살은 인법당 문을 열었다. 보살은 위로받고 싶어 앞뒤 사정을 길게 얘기했지만 해암은 보살의 말을 잘랐다.

“큰스님, 산길을 잃고 죽을 뻔했습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고?”

보살이 할말을 잊고 찻때마다 그제야 해암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지 않고 왜 왔어.”

“풀벌레 소리가 시끄러워서 왔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깬달리지 말고 풀벌레 소리를 듣는 놈이 누군가, 이랬고 해봐. 화두가 들리면 조용해질거요.”

보살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주저하지 않고 해암에게 삼배를 하고 가부좌를 틀었다. 호흡을 가다듬고 해암이 시키는 대로 화두를 들었다. 산길을 끌고 다닌 몸뚱이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고 시선을 안으로 돌렸다.

그러나 보살의 자제는 오래 가지 못했다. 산길을 해매느라 너무 힘들었으므로 눈꺼풀이 납덩어리처럼 무거웠다. 보살은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졸았다. 그때였다. 해암이 죽비로 보살의 등쪽을 쳤다. 보살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가 시험을 한 번 해본 것이지요. 누가 양식을 가져와도 안 받고 쌀밥, 보리밥은 한 끼도 안 먹고 내 말을 사는데 몸이 날아갈 것 같데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섭지 않을 것 같고 정신만 남아 몸뚱이가 없는 것 같아요.

불이 돌아와 무슨 씨앗인가를 심으려고 꿩이질을 하는데 마음은 아무렇지 않지만 허리가 푹 굽어지려고 해요. 그래, 아픈 허리를 나오려고 민가로 찾아가서 쌀 한 톨을 얻어와 갈아서 국물처럼 마시니까 언제 아팠냐는 듯 나아버려요.

얼마나 그때는 좋던지, 아침에 방을 나오면 사람 키보다 눈이 많이 내려 있어요. 눈도 오고 바람도 불지만 누구에게 웃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눈에 산길이 막혀 오고갈 수도 없었지요. 그러니 공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또 뒤으러 왔지 잘 먹으러 왔냐는 생각이 드니 더 잘 돼요. 그냥 기분 생각만 나고 고생스럽다거나 싫은 생각은 저절로 없어져 버려요.

옛날 스님네들은 다 이런 고생을 하는 가운데 도를 닦아서 도인 됐는데, 나 역시 또 뒤으러 온 사람이 어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리 싶어 그냥 용맹심이 나옵니다. 또 뒤으려고 왔다는 생각 하나만 내면 바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바로 용맹심이 나와요.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 이런 일이 몇 백년 전 옛날 이야기 같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보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쯤 들어볼 만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에 수행하는 스님들은 가난부터 배우라고 합니다. 상삼(常三)이 부족해야 한다고 그래요. 세 가지가 항상 부족해야 하는데 집과 옷, 먹을 것이 부족해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가난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공

##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신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정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안 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결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매년 설날, 중앙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함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http://www.wondangam.org)  
 감원 벽산 원각 |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月明風清